

“초복엔 역시 닭이 최고”... 광주 어르신들 ‘웃음꽃’

서구, 초복맞이 무료 삼계탕 나눔... 준비된 닭 600마리 완판 ‘성황’

“점심 한 끼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삼복더위 중 첫 번째인 초복을 나흘 앞둔 16일 오전 광주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어르신들.

센터는 이날 지역 어르신들에게 초복을 맞아 따뜻한 삼계탕 한 그릇을 대접하기 위한 자원봉사자들로 분주했다.

자원봉사자들은 주방 한 칸에 놓인 큰 솥단지들 오가며 부글부글 끓는 삼계탕의 간을 보거나 반찬을 준비하느라 여념없었다. 솥단지에는 깃털이 뽑힌 닭 600마리가 뱃속에 찹쌀을 품고 뽀얀 국물에 몸을 담근 채 구수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자원봉사자들이 정성스런 손길로 닭을 건져 식판마다 옮겨 담는 사이 주방 바깥에서는 오래간만에 사람 냄새가 물씬 풍기는 장이 열렸다.

배식을 받으러 모여든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만난 서로에게 악수를 청하던이내 자리에서 앉아 화제를 둘러가며 이야기 기포파리를 풀었다. 이따금 주방에서 새어 나오는 삼계탕의 구수한 냄새에는 설

레는 표정을 지어 보이면서 입맛을 다셨다.

식사를 하기 전부터 마련된 좌석 200여 석은 들어찼다.

자원봉사자들은 삼계탕이 담긴 식판을 들고 어르신들이 앉은 좌석으로 직접 배달했다. 빠른 바르게 어려워하는 어르신에게는 직접 다가가 식사를 도왔다.

어르신들은 모두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삼계탕을 먹었다. “초복엔 역시 닭이 최고다”, “얼마 만에 먹어보는 맛이” 등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는 어르신들의 입가엔 미소가 가득했다.

한 70대 할머니는 “자식들이 보양식을 먹으러 가져다 주고 해도 비싸고 부담돼 한사코 거절했다. 이렇게 귀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아주 잘 먹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60대 김모씨는 “약자지결한 곳에서 얼마 만에 밥을 먹는지 모르겠다. 점심 한 끼가 소중한 노인들이 정말 많다. 음식 맛은 물론 사람 냄새를 맡을 수 있어서 행복하다”고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들은 서구와 자원봉사자에게



삼복더위 중 첫 번째인 초복을 앞둔 16일 오전 광주 서구 서빛마루시니어센터에서 서구가 마련한 삼계탕을 지역내 어르신들이 맛보고 있다.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식사를 마친 후 손을 잡고 나오던 김중기(78)·박수남(75·여) 부부는 “초복이 나이 많은 우리를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줘서 몸 둘 바를 모르겠다. 너무 잘 먹고, 고맙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했다.

이모(76)씨는 “저렇게 더운 조리실에서 고생하는 분들과 각자 위치에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너무 감사할 따름이다. 서구민으로서 참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이선화 ‘어르신을 부탁해’ 재가복지센터 대표는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된 지 7년이 됐다. 혼자 시작했던 봉사가 어느덧 한 조직이 됐다. 봉사활동을 하면서 좋아하시는 어르신들의 표정을 보면 멈출 수 없어서 쪽이어서 오고 있다. 앞으로도 꾸준한 봉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박석우 기자

‘마음까지 시원한 복지’ 강진군, 경로당 냉방기 정비 무더위 대피

경로당 에어컨 지원으로 마음까지 시원한 복지 실현

강진군이 경로당 노후 에어컨을 신속히 교체하면서, 무더위 속 어르신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여름 복지’를 실현하고 있다.

군은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관내 경로당 중 낡은 에어컨을 우선 파악하고, 신속한 교체 지원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기기 고장이나 냉방 성능 저하로 어려움을 겪던 어르신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경로당을 이용 중인 평동마을 방정자 어르신은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바람이 거의 안 나왔는데, 이렇게 빨리 새걸로 바꿔주니 너무 시원하고 감사하다”며 “냉방도 좋지만 이렇게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니 마음까지 시원하다”고 환하게 웃었다.

강진군은 교체 대상 경로당을 현장 실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신속히 정비하고 있으며, 설치 이후에도 철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냉방기 교체와 더불어 전기설비의 안전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 여름철 더위 속 화재 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배수로 정비, 지붕 및 창호 누수 여부 점검

등 침수 예방 조치도 병행하며,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 대응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르신들이 여름철 무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경로당이 단순한 쉼터를 넘어, 시원하고 안전한 복지 거점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에어컨 교체 지원은 단순한 시설 보완이 아닌, 어르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속 맞춤형 복지’로 평가받고 있으며, ‘마음까지 시원한 복지’라는 메시지가 강진군 경로당 현장에서 실현되고 있다.

군은 올해 초 수요조사와 현장 실체 점검을 거쳐, 관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본격 추진했다.

총 1억7,000만원의 군비를 투입해, 2차례에 걸쳐 110개 경로당에 소파 116세트, 129개 경로당에는 접이식 식탁 418조와 의자 1,780개를 지원했다.

이번 지원은 관절 통증 등으로 좌식 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들을 배려한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보다 편안한 자세로



폭염 속 강진원 군수가 칠량면 송산마을 경로당을 찾은 가운데 6·25참전유사와 대화를 나누며 여름철 건강유지에 각별하게 유의를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여가를 즐기고, 식사 환경 또한 쾌적하고 위생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돕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특히 입식 식탁과 소파 도입은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며, 높은 만족도를 이끌어내고 있다.

강진군은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폭염 대응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근에

는 한국수자원공사의 후원을 받아 생수 2,304병을 읍면별로 배부하며,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이 보다 안전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강진군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건강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보성군, 나눔을 실천하는 ‘따봉가게’ 5곳에 현판 전달

지역사회 온기 확산... 정기후원 가게에 감사의 뜻 전해

보성군은 16일 군청 2층 군수실에서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해 매월 정기적인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가게 5곳을 ‘따봉가게’로 지정하고, 현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따봉가게’는 ‘따뜻한 봉사로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의 줄임말로, 관내 저소득 아동, 사례 관리 대상자, 복지 위기가정 등 5~6가구를 대상으로 매월 1회 자발적인 물품 제공 및 후원을 이어가는 나눔 가게다.

이번에 현판을 전달받은 가게는 ▲임가네식육식당(대표 임영미), ▲BHC치킨보성점(대표 서영안), ▲교촌치킨보성점(대표 이민준), ▲달빛상점(대표 김주경), ▲사계절양식당(대표 이현아)이다.

이들은 각 가게의 특성을 살려 식료품, 반찬, 간식 등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며, 매

달 총 26가구에 약 80만 원 상당의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보성군의 ‘따봉가게’ 나눔 활동은 지난 2017년 임가네식육식당의 자발적 후원으로 시작돼 현재 5개소로 확산됐으며, 지속적인 연계와 실천으로 지역사회 복지안전망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도 이웃에게 나눔을 실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지속적인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성군은 지역 내 자원봉사 활성화 및 나눔 문화 정착을 위해 ‘따봉가게’ 확대 운영, 복지 사각지대 해소 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성/김운기 기자



한빛원자력본부, 농번기 일손 돕기 봉사활동 시행

전남대학교 학생 봉사단과 함께 백수읍 소재 농가 일손 도와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김성면)는 지난 15일(화), 체코원전 수주 성공을 기념하여 지역 상생을 위한 농번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 이날 한빛원자력봉사대와 전남대학교 학생 총 60여 명은 백수읍 소재의 농가를 방문하여 약 5,000평에 달하는 고추밭과 담배밭에서 구슬땀을 흘렸다.

봉사자들은 곳곳에 불구하고 고추 지지대 고정 작업과 담배꽃 제거를 도우며 지역 농가에 힘을 보탰다.

앞으로도 한빛원자력본부는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역 상생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영광/이현식 기자



한수위의 에너지 한수원이 만드는 중!

미래형 소형원자로(SMR) 개발
세계 곳곳에 원자력 수출
클린에너지 원자력 수소

대한민국 에너지를 한 수 UP!

한국수력원자력주

BUSAN is READY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를 한국수력원자력이 응원합니다